

## 이케다 선생님 쿠바 방문 25주년

2021년 6월 25일

라미레스 대사(大使) “양국의 교류(交流) 촉진에 진력”



이케다 선생님과 카스트로 의장이 회견. 깊은 우정을 키웠다. (1996년 6월 아바나의 혁명궁전에서)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의 쿠바공화국 방문으로부터 이달 24일로 25주년을 맞이했다.

1996년 6월 24일, 미국·マイ애미로부터 바하마국을 경유(經由)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내린 선생님은 다음날인 25일, 즉 25년 전 오늘, 아바나시(市) ‘최고賓客(最高賓客)’ 칭호, 국가훈장인 ‘펠릭스·발레라훈장훈일등(勳章勳一等)’을 수상. 아바나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학위’를 받아 기념강연을 했다.

그리고 밤에는 피델·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당시)과의 역사적인 회견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선생님 방문 25주년에 즈음해 미겔 라미레스 주일대사가 서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 속에서 대사는 선생님의 방문은 쿠바 정부와 국민에게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스트로 의장이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선생님을 환영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더욱이 선생님의 노력으로 양국 간 문화(文化)· 교육(教育) 교류(交流)가 촉진(促進)되었다고 언급. 선생님의 행동은 쿠바의 영웅 호세 마르티의 “모든 차이에 대한 이해”라는 사상과 일치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인류구제를 위해 불굴의 정신으로 싸웠다”고 평가했다. (하단 상세 보도)



쿠바의 수도 하바나 구시가(舊市街)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선생님의 방문 당시,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관계가 깊었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혼란도 계속되었다. 그런 속에 선생님은 쿠바의 땅을 밟았다. “불법자(佛法者)에게는 반미(反美)도 반쿠바도 없다. ‘평화(平和)를’이라는 근본의 의사만 합치(合致)한다면 대화의 가능성은 찾아야 한다.”라는 신념(信念)에서였다.

카스트로 의장과의 회담은 예정된 30분보다 길어져 1시간 반가량. ‘후계자(後繼者)’ ‘인재육성(人材育成)’ ‘정치철학(政治哲學)’ 등을 테마로 의견을 나눴고 ‘핵무기는 절대무용(絕對無用)’이라는 견해(見解)에도 일치(一致)를 보았다.

**“창가학회(創價學會)의 분들은 평화를 위한 활동에 전 혼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래서 존경합니다.”**

의장은 선생님과 학회(學會)의 이념과 행동을 상찬했다.

이 방문 후, 선생님은 쿠바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르티를 둘러싼 비티에르 박사와 대담집을 발간했다. 2007년에는 쿠바 창가학회가 법인인가(法人認可)를 받아 창가(創價)의 벗은 사회공헌의 길을 걷는다.

25년 전의 발자취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의 원점으로 계속해 빛나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의 쿠바 방문으로부터 25주년〉**

**미겔 라미레스 주일대사에게 듣는다**

**2021년 6월 27일**

마르티의 사상· 행동과 서로 울리는 평화 구축에 대한 헌신

이달 24일,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쿠바 공화국 방문으로부터 25주년을 맞이했다. 미겔 라미레스 주일대사(駐日大使)에게 방문의 의의나 창가학회(創價學會)에 대한 기대 등을 물었다. <듣는이 미야코시 쇼헤이(宮越翔平)>

▷ 1996년 6월, 이케다 SGI 회장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체재 중, 고 피델 카스트로 의장과의 회견(會見), 아바나대학 ‘명예인문박사 학위’, 아바나시(市) ‘최고賓객(最高賓客)’ 칭호, 국가훈장(國家勳章) ‘펠릭스발레라훈장훈일등(勳章勳一等)’의 수여(授與) 등이 행해졌습니다.



이케다 박사의 쿠바 방문은 정부(政府)와 국민(國民)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쿠바 체재 중 하이라이트가 된 것은 혁명(革命) 지도자(指導者)인 피델과 박사와의 회견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피델은 항상 착용한 군복이 아닌, 슈트를 입고 환영.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테마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이케다 박사는 쿠바와 일본의 문화(文化)· 교육(教育) 교류(交流)를 강화해 오셨습니다. 80년대 민주음악협회(民主音樂協會)의 초빙으로 쿠바 음악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바나대학과 소카대학(創價大學)의 학술 교류, 도쿄후지미술관과 쿠바 국립미술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은 우리가 가까운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과 카스트로 의장의 회견에서는 ‘후계자’ ‘인재육성’ ‘정치철학’ 등의 다방면에 걸친 테마가 논의되었다. (1996년 6월, 아바나시의 혁명궁전에서)

▷ 이케다 회장은 호세 마르티 연구소 소장인 고(故) 신티오 비티에르(Cintio Vitier) 박사와의 대담집(對談集) 『카리브의 태양 정의(正義)의 시(詩)』를 2001년 발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케다 박사와 비티에르(Cintio Vitier) 씨는 대담집에서 ‘쿠바의 사도(使徒)’로 추앙받았던 호세 마르티의 생애(生涯), 그리고 위공(偉功)에 대한 대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고(故) 에우세비오 레알 씨가 이 책을 칭찬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레알 씨는 두 사람이 일본인에게 ‘쿠바의 영웅’을 친밀한 존재로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마르티를 아는 데 있어서, 일본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르티와 이케다 박사의 사상과 행동은 서로 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필할 점은 ‘평화 구축에 대한 헌신(獻身)’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께서 마르티에 대해 경모(敬慕)의 마음을 품고 연구하여 그 위업을 일본에서 선양(宣揚)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박사와 마르티에게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엄(尊嚴)의 존중(尊重), 인권보장(人權保障), 문화, 사회, 종교 차이 등 모든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 생명을 위해, 인류구제를 위해 불굴(不屈)의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그 대의(大義)의 성취(成就)에 불가결(不可缺)하다고 파악한 것이 여러 국가 간의 우애(友愛)의 강고(強固)한 유대의 구축, 분쟁 해결을 위한 비참(悲慘)한 전쟁의 박멸(撲滅)입니다.



아바나 시내의 혁명 광장에 서 있는 호세 마르티상(像). 이케다 선생님은 1996년에 방문하여 헌화(獻花)했다.

▷ 쿠바 창가학회는 2007년 국내 불교단체 중 유일하게 종교법인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핵 폐기를 호소한 전시(展示)나 종교간 대화의 포럼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대사의 솔직한 평가를 들려주십시오.

쿠바 창가학회는 평화와 연대의 촉진, 시민의 의식 계발을 목표로 하여 확실한 윤리관에 근거한 사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을 지탱하는 그 사회공헌은 평가할 만합니다.

쿠바 국가는 앞으로도 창가학회(創價學會)와 우호(友好) 관계를 유지하며 종교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쿠바와 일본인들을 위해 상호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